

바리새인에게 분노하는 바리새인 <단편설교>

2020년대 이후 사회적 분노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다. 하지만 곰곰히 생각하면 우리의 분노에는 모순이 있다. 그 모순은 무엇인가?

본문 말씀

| 요8:1~11

모순에 빠지는 바리새인

- 사랑 없는 남편은 사랑 없는 아내의 사랑에 분노하며 자신도 사랑 없음을 드러낸다.
- 인간은 왜 분노하는가? 분노는 의로움에 대한 합리적인 반응이다. 또한 인간은 자신이 정당하고, 상대가 불의하다고 생각할 때 분노한다. 하지만 정작 그렇지 않은 모순이 있다.

모순에 빠진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물음

-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자들의 마음의 기저에는 “나는 이 죄에 있어. 정당해.”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. 그들의 분노는 의로움에 대한 반응처럼 보였고, 그들은 정당해보였다.
- 하지만 예수님은 “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”라고 말씀하시며 “정말 너희는 정당하니?”라고 물으셨다. 예수님이 사람들의 모순을 들추어내신 것이다.

분노하지 않으시며 예수님이 하신 일

-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에게 마땅히 하실 수 있는 말은 “이제 네 죄에 대한 마땅한 대우를 받으라”며 돌을 집으셔야 했다. 예수님은 모순적이지 않고, 죄가 없기 때문이다. 그러나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하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다.
- 예수님께서서는 단순히 정죄만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. 정죄 받은 그 여인을 위해 정죄를 받으셨다. 여인에게 쏟아져야 했던 군중과 하나님의 분노는 그리스도께 쏟아졌고, 그래서 그 여인과 우리는 용서를 받았다.

한 줄 포인트

“나는 정당하다”는 자리에서 건지시는 은혜

소그룹 나눔

1. 최근에 화난 일은 무엇인가요? 그 분노 안에는 “나는 정당하다”는 마음이 있었나요?
2. "정죄하지 않는다, 그러니 죄를 짓지 말라"와 "죄를 짓지 말라, 그러면 정죄하지 않겠다"는 어떻게 다른가요? 내 신앙생활은 실제로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요?
3. 이번 한 주, 화가 올라올 때 "나는 지금 어디에 서서 화를 내고 있는가?"를 물으며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 보시겠어요? 그 결단을 위해 서로 기도해 줍시다.

교회 소식

1. QT 말씀묵상

- 9월부터 '날마다 솟는 샘물(국제제자훈련원)'으로 말씀묵상을 합니다.
- 각 개인이 스스로 말씀묵상을 하는 훈련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 다들 잘 참여해주세요.
- 오후예배 시간에는 개인 성경 묵상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특강을 합니다.

2. 금요기도회 안내

- 금요기되는 '하나님의 성품 ' 을 다루고 있습니다.
- 금요기도회는 8시 30분부터 있습니다. 많이 참여해서 같이 기도해요.



주소 |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6, 백우현진빌딩 4층
계좌 | 카카오�뱅크 7942-23-90202
예금주 | 박현진 (시선교회 모임통장)

전화 | 070.8800.7712
이메일 | seesunchurch@gmail.com
홈페이지 | www.seesunchurch.or.kr